

退溪集을 통하여 본 陶山書堂의 造營의 特性에 關한 研究

金 永 模*·崔 杞 秀**

*서울市立大學校 造景學科 助教

**서울市立大學校 造景學科 教授

A Study on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of the Dosanseodang through the Review of 「The Writings of Toegye」

Kim Young-Mo · Choi Key-Soo**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eoul City University

ABSTRACT

As a faithful study about the intended plan of builder, this article studied the Dosanseodang(陶山書堂) which is located in the Dosanseowon(陶山書院). The Dosanseowon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Yi-Dynasty' Seowons. Through the review of 「The Writings of Toegye」, It is found several intended plan of the Dosanseodang(陶山書堂) as follows.

1. When Toegye located the site of the Dosanseodang in the Dosan, using four criteria such as 1) geographical characteristics(地理), 2) hills and waters(山水) 3) form and orientation of valley, 4) so-cial characteristics.
2. In the Dosan area, the location of Seodang was determined by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valley(orientation and entrance), not by the concept of Fung-sui(風水).
3. The whole spatial structure of Seodang area formed triangle, and the Dosanseodang was located at the angular point of the triangle.
4. The landscape elements of the Dosanseodang fell into the three landscape hierarchy such as a front view, a middle view, and a distance view. Besides the three views, there was a borrowed view which Toegye defined in terms of ownership.

I. 序 論

1. 研究背景 및 目的

近來에 들어서 環境設計의 제 분야에서 傳統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주로 建築物을 중심으로한 傳統建築類型의 일부에 국한되어 연구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樣式的이고 類型別的인 연구에 전념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傳統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 측면에서는 단순히 前世代의 外形的 要素들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 및 맹목적인 답습의 방법은 止揚되어야 할 것이며, 전통사 연구의 방법도 傳統的 要素가 나타나게 된 根本背景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조사가능한 자료를 토대로한 原典에 충실한 解析이 傳統史 研究의 가장 중요한 前提라 할 수 있다. 이렇듯 본 연구는 造營者의 造營意圖에 충실한 연구라는 측면에서 造營者의 造營의도를 비교적 쉽게 살펴볼 수 있는 朝鮮時代 書院의 대표격인 陶山書院중 도산서당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陶山書堂의 造營의도가 잘 나타난 退溪의「退溪集」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1) 退溪가 末년에 陶山에 書堂을 조성하게 되는 立地背景은 무엇인가?
- 2) 退溪가 定着地를 세번이나 옮긴(三遷其也) 이유와, 이러한 각각의 定着地와 陶山書堂의 形局的 特性의 차이는 무엇인가?
- 3) 陶山書堂의 造營에 나타나는 空間構造的 特성과 景觀構成體系的 特性은 무엇인가?

2 研究方法 및 範圍

本 研究의 空間的 範圍는 현재의 陶山書院중 退溪가 生前에 조성한 陶山書堂과 朧雲精舍를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陶山面 일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본 연구가 退溪 生前의 모든 것을 기록한 退溪集을 통하여 수행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陶山書院은 退溪 死後에 退溪를 기리기 위하여 後學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退溪集의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造營의도를 알 수 없어 陶山書堂에 범위를 한정한다. 研究를 遂行하는 방법으로는 理論研究와 事例研究를 병행한다. 이론연구에서는 퇴계 생전의 저술을 정리 수록한 「退溪集」을 중심으로 하여 陶山書堂의 造營과 관련된 詩와 書, 記, 雜詠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退溪가 도산서당에 자리(卜居)를 정하게 되는 立地背景과 도산서

당의 形局的 特性, 空間的·景觀的 特性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며, 이러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陶山書院圖, 大同與地圖, 地形圖등을 통한 도면작업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도산서당의 造營적 特性을 정리한다.

II. 退溪集에 나타난 陶山書堂의 立地背景

退溪는 생전에 방대한 많은 저술을 남겼다. 그의 대부분의 저술을 정리, 수록한 退溪集을 내용상 분류하면 詩와 書, 그밖에 思想에 관한 論文등과 「理學通錄書」와 「啓蒙傳疑」등과 「年譜」와 「言行錄」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退溪集의 내용중 「陶山雜詠」과 「陶山記」에는 退溪가 陶山에 書堂터를 정하고 조성하게 된 배경과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1. 退溪의 樂山水觀

退溪가 만년의 卜居와 講學의 터로 陶山을 정한 배경에는 그의 樂山樂水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退溪의 樂山水觀은 그가 弟子이자 宗外孫인 權好文에게 준 글인 「答權生好文論樂山樂水」에서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다.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는 말은 (樂山樂水) 산이 곧 어짐이고 물이 곧 슬기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과 山水의 性이 같다는 말도 아니다. 다만 어진이는 산과 「비슷」하기 때문에 산을 좋아하고, 슬기있는 사람은 물과 「비슷」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한 것이다. 비슷하다는 것은 어진이 (仁者)와 슬기있는 이(智者)의 기상과 의사를 두고 한 말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통하여 근본을 구하고 본보기의 극치를 삼으려는 것이지, 산과 물에서 어짐과 슬기를 구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내 마음에 어짐과 슬기의 내용이 가득차서 밖으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樂山樂水」는 간절히 구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얻게 될 것이다.¹⁾

라는 말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山水의 어떤 形象을 통하여 事物의 근본을 구하는, 즉 自然이 주는 인간에 대한 교육에 깊은 이해를 가졌다.

또한 退溪의 陶山記에는 陶山雜詠을 지은 動機와 여러가지 事實, 理論등이 상세하게 실려있는데, 이 陶山記의 내용을 李家源 教授는 16段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는데,²⁾ 이 16段的 내용 중 13段에서 16段까지는 退溪의 山水之樂을 피력한 내용으로서, 그중 第15段的 내용은 退溪가 淸涼山보다 陶山을 그의 晩年の 卜居와 隱居할 터로서 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옛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名山을 얻어 자기 자신을 위탁하였거늘, 그대는 왜 淸량산에 살지 않고 여기 사는가” 하였다. 그래서 나는, “淸량산은 만 길이나 높은 절벽이 위태롭게 깊은 골짜기에 다달아 있기 때문에, 늘고 병든 사람의 편안히 살 곳이 못 된다. 또 산을 즐기고 물을 즐기려면 그 하나가 없어도 안 되는데, 지금 낙천은 비록 淸량산을 흘러 지나가는 하지마는, 그 산 가운데 물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나도 淸량산에서 살기를 진실로 원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뒤로 하고 이 곳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여기는 산과 물을 겸하고 또 늙고 병든 이에게 편하기 때문이다.”³⁾

이처럼 退溪가 淸涼山을 사랑하지 않음은 아니로되, 특히 老病을 修養함에 있어서 行실이 편안치 않기도 하려니와, 山林을 즐기려면 山·水의 두 가지를 겸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淸涼山을 버리고 陶山을 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2 退溪의 儒家的 隱遁觀

陶山記의 13段을 살펴보면 退溪가 晩年に 田園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와 함께 陶山에서 山林之樂을 누릴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아아, 나는 불행히도 먼 시골에 태어나서 투박하고 고루하여 들은 것이 없으면서도 산림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일찍 알았다. 그러나 중년에 들어 망령되어 세상에 나아가 바람과 티끌이 뒤덮는 속에서 여러 해를 보내면서 스스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의 죽을 뻔하였다. 그 뒤에 나이는 더욱 들고 병은 더욱 깊어지며 처세는 더욱 곤란하여지고 보니 세상은 나를 버리지 않지만 내가 부득이 세상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번롱을 벗어나 전원엔 몸을 던지니 앞에서 말한 산림의 즐거움이 뜻밖에 내 앞으로 닥쳤던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랜 병을 고치고 깊은 시름을 들면서, 늘 그막을 편히 할 곳은 여기를 버리고 또 어디가서 구할 것인가.⁴⁾

이 13段에서는 일찍부터 ‘山林之樂’이 있음을 알았으나 中年에 仕路에 나갔다가, 이제 老境에 이르러 田園으로 돌아왔는 바, ‘山林之樂’이 아니고서는 積病과 幽憂를 떨쳐버릴 길이 별도로 없음을 밝혔다.

또한 13段에서는 山林之樂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옛날 산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玄虛를 사모하여 高尚으로 일삼음을 즐기는 사람이요, 둘째는 道義를 즐기어 心性 기르기를 즐기는 사람이다. 첫째 사람을 말하면 몸을 더럽힐까 두려워함으로써 세상과

註 1) 鄭淳睦, 退溪評傳, p. 102.

2) 李家源, 退溪學及其系譜的 研究, pp. 126-134.

3)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退溪集 I, pp. 39-40.

4) 上揭書, pp. 38-39.

인연을 끊고, 심한 이는 짐승같이 살면서 그것을 그르다고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둘째 사람으로 말하면, 즐기는 것이 糟粕뿐이어서 전할 수 없는 묘한 이치에 이르러서는 구할 수록 더욱 얻지 못하거늘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차라리 둘째의 것을 위하여 힘쓸지언정 첫째 것을 위하여 스스로 속이지는 않아야 할 것이거늘, 어느 여가에 이른바 세속에 번거로운 것이 내마음에 들어오겠는가...⁵⁾

라는 내용에서 처럼 그는 節俗하는 道家的 絶對隱遁 보다는 “道義를 즐기어 心性을 기르기를 즐기는” 儒家的인 隱遁을 선택하였으며, 晩年에 仕路에서 돌아와서의 隱遁의 장소로서는 陶山이 가장 적절한 곳임을 은연중 나타내고 있다.

3. 退溪의 精舍經營

退溪의 末年의 卜居는 朱子가 末年에 武夷九曲에 武夷精舍를 짓고 卜居한 사실과 많은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즉 退溪의 淸涼山이 晦菴의 雲谷과 같다면 陶山書堂은 武夷精舍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退溪는 陶山記의 第5段과 6段에서 陶山書堂이 이루어진 經緯와 規模, 命名한 뜻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처음에 내가 退溪 위에 자리를 잡고, 시내 옆에 두어간 집을 얻어짓고, 책을 간직하고 웅졸한 성품을 기르는 처소로 삼으려 하였더니, 벌써 세번이나 그 자리를 옮겼으나 번번이 비바람에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시내 위는 너무 한적하여 가슴을 넓히기에 적당치 않기 때문에 다시 옮기기로 작정하고 산 남쪽에 땅을 얻었던 것이다
...

어떤 농부가 그 안에 밭을 일구고 사는 것을 내가 그 땅을 샀는데, 거기에 집짓는 일을 法蓮이란 중이 맡았다가 얼마 안 되어 갑자기 죽었으므로, 淨—이란 중이 그것을 계승하였다.

丁巳年에서 辛酉年까지 5년 만에 堂舍 두 채가 되어 겨우 거처할 만하였다. 당사는 세칸인데, 중간 한칸은 玩樂齋라 하였으니, 그것은 朱先生의 明堂室記에 “완상하여 즐기니 족히 여기서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동쪽 한 칸은 岩樓軒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朱先生〉雲谷의 시에 “〈학문에 대한〉 自信을 오래도록 가지지 못했더니 깃들여(岩樓) 조그만 효험이라도 바란다”는 말을 따온 것이다. 그리고 합해서 陶山書堂이라고 현판을 달았다.

당사는 모두 여덟칸이니 時習齋, 止宿寮, 觀瀾軒이라고 하였는데, 모두 합해서 龐雲精舍라고 현판을 달았다.⁷⁾

위의 내용에서 보는 것과 같이 末年에 退溪가 陶山에 자리를 잡고 陶山書堂을 조성한 것은 朱子가 末年에 武夷九曲에 자리를 잡아 武夷精舍를 경영한 사실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陶山에서의 卜居와 講學을 위한 精舍의 經營은 士禍로 어지러운 세상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나아가서 벼슬하면서 經論을 펴는데 기대를 가지지 않고 學文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온 것이었다. 退溪는 道學을 하는 방법, 즉 自然과의 化合을 체험하면서 心性을 탐구하는 朱子의 雲谷에서의 武夷精舍 생활을 모범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⁸⁾

註 5) 上揭書, pp. 39.

6) 李家源, 退溪學及其系譜的研究, p. 134.

7) 민족문화추진회, 前揭書, pp. 35-36.

8) 崔杞秀,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景觀構造의 解析에 關한 研究, p. 78.

陶山記의 내용에서 처럼 陶山의 形勢는 北東, 西측의 三面이 구릉으로 에워싸여져 있고, 左側에서 남쪽으로 洛東江의 원류인 洛川이 흐르고, 남측으로는 전망이 탁여져 있는 형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退溪集의 樂山水篇에는 그가 세번이나 書齋를 옮겨 上溪 위에 살터를 마련하게 되는 과정과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선생은 나이 50이 되도록 아직 집이 없었다. 처음에는 霞峰에 집을 지었다가 중간에 竹洞으로 옮기고, 마침내는 退溪 위에 다 아주 자리를 정했다. 집 서쪽 시냇가에 집을 지어 이름을 한서라 하고,...

경술년 2월에 비로서 시내 위에 집을 지었는데, 지금의 서쪽방이 그것이다. 처음에 霞明洞 지하봉 밑에 땅을 얻어 집을 짓다가 마치지 못하고 말았는데, 그것은 그 골이 洛川에 가깝고, 낙천은 관가의 감독이 미치는 곳으로서 자손들이 살기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竹洞으로 옮겼으나, 죽동은 골이 좁을 뿐 아니라 또한 시냇물이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退溪위에 집을 지었으니, 곧 세번을 옮겨 완전히 자리를 잡은 셈이다.”¹⁰⁾

이처럼 退溪는 일찍이 書齋를 霞明洞, 竹洞, 上溪 등지에 세차례나 옮겼으므로 ‘三遷其地’라 일렀다.

또한 陶山記의 第4段에서는 退溪가 세번이나 집터를 옮긴 후에 정한 上溪의 최종정착지에서 陶山을 書堂의 터로 정하게 되는, 즉 뜻에 맞는 藏修地를 얻기 어려웠던 고충과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처음에 내가 퇴계 위에 자리를 잡고, 시내 옆에 두어 간 집을 얻어 짓고, 책을 간직하고 웅졸한 성품을 기르는 처소로 삼으려

하였더니, 벌써 세 번이나 그 자리를 옮겼으나 번번이 비바람에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시내 위는 너무 한적하여 가슴을 넓히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옮기기로 작정하고 산 남쪽에 땅을 얻었던 것이다.¹¹⁾

이렇게 退溪가 上溪에서 陶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이유는 아래의 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퇴계 시내 위에	서재를 마련한 뒤
광음이 덧이 없어	얼마나 홀렸던고
허술한 한서암은	여러차례 옮겼으나
튼튼치 못하여서	얼마 안 되어 쓰러졌네
비록 샘과 돌의	그윽함을 사랑하나
마침내 그 형세는	좁은 것이 흠이로다
우연히 탄식하며	다른 곳을 두루 찾아
높은 데나 깊은 데를	안 다닌 곳 없었노라
이제 이 시내 남편에	이 도산이 있었다니
가까운 곳 숨겨졌음	참으로 괴이한 일
어제 우연히 나가	혼자서 찾아두고
오늘 아침 너희들과	함께 오려 하였노라
이어진 봉우리는	구름 위에 솟아 있고
꿇어진 언덕은	강가에 다다른다
겹겹이 푸른 물은	섬을 에워 둘러 있고
머흐린 멧부리는	못상투가 서 있는 듯
그 밑의 한 동학을	굽어서 살펴보니
오랫동안 원하던 일	목은 빛을 갠 듯이
요조히 아리따운	두 메 사이에
맑게 개인 아지랭이	그림 속에 드는 듯이... ¹²⁾

위의 내용에서 陶山의 形局은 退溪가 ‘이어진 봉우리’, ‘꿇어진 언덕’, ‘겹겹이 푸른 물의 섬’, ‘못상투가 서있는 듯한 봉우리’, ‘두 메 사이의 장소’로 표현하듯 산 봉우리들에 의해 둘러싸여져 있고, 앞으로는 꿇어진 절벽과 강이 섬을 돌아들어 나가는 形局을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註 10) 民族文化推進會, 國譯 退溪集 II, pp. 289-290.

11) 民族文化推進會, 國譯 退溪集 I, pp. 35.

12) 李家源 退溪詩譯注, pp. 242-243.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退溪가 霞明洞으로 부터 陶山으로 자리를 옮기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1차 정착지였던 霞明洞¹³⁾은 궁중에 진상하는 낙천의 銀魚를 자손들이 포획하는 것을 방지하고자(주민의 말)하는 이유와, 인구가 조밀하여 한적하지 않고(퇴계연보), 골이 낙천에 가깝고 낙천은 관가의 감독이 미치는 곳이라 자손들이 살기에 마땅치 않다(퇴계 언행록)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고 竹洞¹⁴⁾

으로 옮겼으며,¹⁵⁾ 竹洞은 물이 적었고 골이 좁아 그가 구하고자 하는 山水의 形局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退溪 위에 자리를 정하였으나 退溪는 골이 좁고 너무 외져 서당터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여 陶山의 남쪽, 즉 지금의 陶山書堂으로 자리를 잡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表 1과 같다.

〈表 1〉 각각의 定着地와 옮긴 이유.

定着地	書堂터로서 부적당한 이유	備 考
霞明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가 조밀하여 한적하지 않음 • 하명동의 골짜기가 낙천에 가깝고 낙천은 관가의 손길이 미침 • 자신의 처신에 따라 자손들이 관가의 해를 입을 까 두려워 함 →山水의 부적당함, 관가와 인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계의 1차 정착지 • 養眞庵(1545) 조성 • 현재의 도산국민학교 자리
竹 洞 (대 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곡이 좁고 계류가 없음 →山水의 부적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계의 2차 정착지 • 현재 상계의 서낭당이 있는 동북골짜기
上 溪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의 외짐(北東向) • 골의 협소함 →山水의 부적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계의 3차 정착지 • 寒栖庵(1550) 조성 • 현재 상계의 한서암

〈表 2〉 각각의 定着地와 陶山書堂의 形局的 特性

(張¹⁷⁾의 논문의 表를 토대로 하여 筆者가 재작성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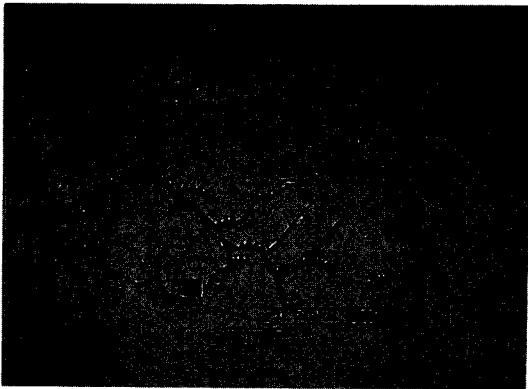
마 을	主 山	靑 龍	白 虎	來 水	安 山	朝 山	坐 向	비 고
霞明洞	유선대 줄 기	자하봉	연화봉	낙 천	×	상 봉 주지봉	남	1 차 정착지
竹 洞 (대 골)	부지봉	○	○	토계수	상계앞산	장계산	남	2 차 정착지
上 溪	도 산	○	남 산	토계수	상계앞산	×	북동	3 차 정착지
陶山書堂	도 산	동취병	서취병	낙 천	○	영지산	남	최 중 정착지

○ 봉우리는 있으나 명칭을 알 수 없는 것
 × 봉우리가 없는 경우

註 13) 유선대의 능선이 남쪽으로 흘러내려 멈춘 곳으로 현재의 도산주민학교터.
 14) 현재의 상계에 있는 서낭당의 동북골짜기.
 15) 崔椿煥, 張聖浚, 安東 上溪洞(안동댐 수물지구 현지조사), p.9
 16) 현재 上溪의 寒栖庵이 있는곳.
 17) 張聖浚, 마을의 領域化에 關한 소론, p.6

退溪가 세번에 걸쳐 이동하게 되는 각각의 定着地와 陶山書堂의 形局의 特性을 비교하여 보면 表 2와 같다.

위 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陶山書堂은 다른 정착지와 비교하여 볼때 山水를 모두 겸비하고 있으며, 風水적으로도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정착지의 形局의 特性을 地形圖를 기초로 하여 도면화하여 보면 圖 2와 같다.



〔圖 2〕 각각의 定着地와 形局의 特性

위의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정착지는 각각 山脈을 따라 立地하고, 來水를 둔 典刑의인 背山臨水刑의 形局을 취하고 있으나, 각각의 定着地와 陶山書堂의 形局에 있어서, 위에 기술한 내용 이외에 圍繞性的의 定度와 來水의 規模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圍繞性的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각각의 정착지가 山에 의하여 에워싸여져 있지만 그 左·右山의 규모가 왜소함으로 개방된 공간의 성격을 갖는데 비하여, 陶山書堂은 三面이 山에 의하여 완전히 둘러싸인, 다섯손가락으로 거문고를 타는 듯한 형국에서 왼손의 엄지와 검지의 자리에 위치하는 이른바 풍수적으로 五脂彈琴型의 形局을 취하고 있다. 이는 學文과 修養, 그리고 講學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는 한적하고 위요된 장소가 기본적 요건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來水의 측면에서 보자면 각각의 정착지가 上溪와 下溪의 골짜기를 끼고 위치하고 있지만, 그 골의 위치(관가와 인접함: 霞明洞),

골의 협소함(竹洞), 골의 외짐(上溪)등의 이유 등으로 낙동강의 원류인 洛川에 임하여 골짜기를 左側에 끼고 위치한 陶山書堂과는 많은 비교를 보이고 있다.

2 陶山雜詠에 나타난 陶山書堂의 景觀의 特性

〈陶山雜詠〉은 退溪의 61歲 辛酉(1561) 겨울에 읊은 漢詩이다. 그 篇目을 一瞥해 보면 〈陶山書堂〉으로 부터 〈芙蓉峯〉에 이르기까지 七言十八絶과, 〈蒙泉〉으로부터 〈校洞〉에 이르기까지 五言 二十六絶, 〈龔巖〉으로부터 〈屏庵〉에 이르기까지의 五言 四絶로 되었으며, 모두 합치면 四十八絶의 連鉅作이다.

〈陶山書堂〉으로 부터 〈芙蓉峯〉까지 읊은 七言 十八絶은 陶山書堂을 중심으로 하여 堂舍, 齋寮, 巖臺, 塘社, 水石, 峯塾의 內·外景을 읊은 것으로서, 그 제목만 一瞥하면, 〈陶山書堂〉·〈巖書軒〉·〈玩樂齋〉·〈幽貞門〉·〈淨友堂〉·〈節友社〉·〈隴雲精舍〉·〈觀瀾軒〉·〈時習齋〉·〈止宿寮〉·〈谷口門〉·〈天淵臺〉·〈天光雲影臺〉·〈濯纓潭〉·〈盤陀石〉·〈東翠屏〉·〈西翠屏〉·〈芙蓉峯〉이다. 또한 五言 二十六絶은 위의 七言 十八絶에서 미진했던 뜻을 서술한 것으로서 〈蒙泉〉, 〈烈井〉, 〈庭草〉, 〈澗柳〉, 〈菜圃〉, 〈花砌〉, 〈西麓〉, 〈南泚〉, 〈翠微〉, 〈寥朗〉, 〈釣磯〉, 〈月艇〉, 〈樂遷〉, 〈漆園〉, 〈魚梁〉, 〈漁村〉, 〈煙林〉, 〈雪徑〉, 〈鷗渚〉, 〈鶴汀〉, 〈江寺〉, 〈官亭〉, 〈長郊〉, 〈遠岵〉, 〈土城〉, 〈校洞〉등이다. 마지막으로 五言四絶은 〈龔巖〉, 〈汾川〉, 〈賀淵〉, 〈屏庵〉으로서 ‘借景’으로 각기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陶山雜詠의 내용을 景觀의으로 대별하여 보면 陶山書堂의 景觀構造의 측면에서의 특성과 眺望對象에 기초한 景觀構成體系의 特性으로 나눌 수 있다.

1) 陶山書堂의 空間構造의 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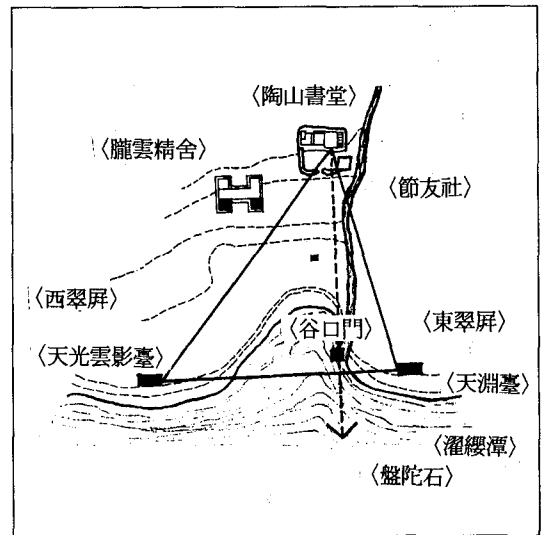
退溪의 陶山雜詠의 七言十八絶은 크게 4段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第1段은 〈陶山書堂〉·〈巖栖軒¹⁸⁾〉·〈玩樂齋¹⁹⁾〉·〈幽貞門²⁰⁾〉·〈淨友堂²¹⁾〉·〈節友社²²⁾〉이고, 第2段은 〈隴雲精舍²³⁾〉·〈觀瀾軒²⁴⁾〉·〈時習齋²⁵⁾〉·〈止宿寮²⁶⁾〉요,

第3段은 〈谷口門〉²⁷⁾·〈天淵臺〉²⁸⁾·〈天光雲影臺〉²⁹⁾·〈濯纓潭〉³⁰⁾·〈盤陀石〉³¹⁾이요, 第4段은 〈東翠屏山〉³²⁾·〈西翠屏山〉³³⁾·〈芙蓉峯〉이다.³⁴⁾ 여기서 第1段은 陶山書堂의 領域을 第2段은 隴雲精舍 領域의 물리적 요소를 통하여 친히 起居와 함께 修道, 講學하는 뜻을 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第3段에서는 谷口門을 山門으로 삼음과 天淵臺와 天光雲影臺에서의 自然의 妙境을 描寫하였으며, 특히 〈盤陀石〉에서는 退溪가 盤陀石을 빌려 어떠한 環境에 처하여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비의 자세, 즉 그의 處世觀을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第4段에서는 東翠屏과 西翠屏, 芙蓉峯의 景觀을 읊고 있다.

아래의 七言十八絶을 살펴보면, 〈陶山書堂〉에서 부터 〈芙蓉峯〉까지의 景觀을 읊은 것으로서 退溪는 陶山書堂과 隴雲精舍를 중심으로 하여 陶山書堂 全體領域의 入口로 谷口門을 설정하고, 書堂의 東편을 흐르는 골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곡구문을 잇는 축선상에 左로는 東翠屏의 끝자락에 臺를 쌓아 天淵臺를, 右로는 西翠屏의 끝자락에 臺를 쌓아 天光雲影臺를 조성하였다. 이는 陶山書堂과 谷口門을 잇는 축을 설정하고 이 축선을 중심으로 하여 天淵臺와 天光雲影臺를 배치한 삼각형 형태의 구조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그림을 통하여 볼 때 退溪는 陶山書堂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坐向과 관

련될 수 있는 陶山書堂과 谷口門을 잇는 中心軸의 설정과 書堂의 左右에 있는 자연요소인 東翠屏과 西翠屏을 이용하여 天淵臺와 天光雲影臺를 人工적으로 조성하여, 自然적인 요소를 陶山書堂의 人工의인 景觀要素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人工적인 臺는 自然景物을 살피는 觀望 및 眺望의 場所로 사용하고 있다.



〔圖 3〕 陶山書堂의 全體 空間構造圖.

2) 眺望對象要素에 따른 景觀構成體系의 特性
陶山雜詠의 七言十八絶은 陶山書堂 全體에서 대표적인 것을 지정한 것이고 이어 대규모 중

註 18) 陶山書堂의 三間 중에서 東一間의 軒名.

19) 陶山書堂의 三間 중에서 中二間의 齋名.

20) 陶山書堂의 출입하는 門.

21) 陶山書堂의 東偏에 있는 작은 蓮池名.

22) 巖栖軒의 東偏에 있으며, 梅·竹·松·菊의 四友를 심은 花壇.

23) 陶山書堂의 西偏에 있는 '工'자로 된 門徒의 工夫하던 講室.

24) 隴雲精舍에 속한 軒名.

25) 隴雲精舍에 속한 齋名.

26) 隴雲精舍에 속한 齋名.

27) 陶山의 山門.

28) 陶山의 東麓에 人工적으로 조성한 臺.

29) 陶山의 西麓에 人工적으로 조성한 臺. 일명 光影臺, 雲影臺.

30) 天淵臺 밑에 있는 潭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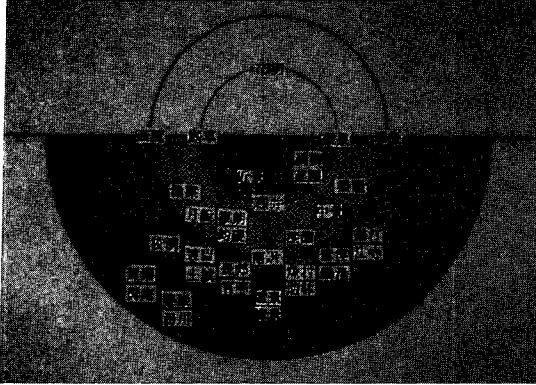
31) 濯纓潭 가운데 있는 바위.

32) 陶山의 左偏에 屏風같이 둘러 있는 매.

33) 陶山의 右偏에 둘러 있는 매.

34) 李家源, 退溪學及其系譜의 研究, pp. 127-128.

에 細心法으로 二十六個所의 景物을 총망라하여 읊었으니, 이는 위의 十八絶에서 미진했던 뜻을 서술하였음이었으며, 이것이 곧 이른바 ‘五言二十六絶’이다.³⁵⁾



〔圖 4〕 陶山書堂의 景觀構成體系圖.

이 二十六絶의 景觀要素를 構成體系上 살펴 보면, 陶山書堂을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의 경관을 읊고 있는 즉, 景觀구성상 近景要素(어린샘(蒙泉)³⁶⁾·차가운 우물(冽井)³⁷⁾·뜨락의 풀(庭草)·시내버들(澗柳)·나물밭(菜圃)³⁸⁾·화체(花砌),³⁹⁾ 中景要素(서편멋기슭(西麓)·남냇물가(南汜)·맷허리(翠微)⁴⁰⁾·아지랭이(寥朗)⁴¹⁾·낚시터(釣磯)⁴²⁾·달실은 배(月艇)·참나무 벼랑(樂遷)⁴³⁾·웃나무 동산(漆園)⁴⁴⁾·고기다리(魚梁),⁴⁵⁾ 遠景要素(고기잡이 동네(漁村)⁴⁶⁾·내 끼인 숲(煙林)·눈 쌓인 길(雪徑)·해오라기 섬(鷗渚)·두루미 물

가(鶴汀)·강위의 절(江寺)·관가정자(官亭)·긴 들거리(長郊)·먼 맷부리(遠岬)·흙성(土城)·향교골(校洞)과 天淵臺에서 바라본 龕巖, 汾川, 賀淵, 屏庵등의 借景要素⁴⁷⁾로 나누어지는 특징이 있다.

IV. 結 論

造營者의 造營意圖에 충실한 研究라는 측면에서 「退溪集」을 통하여 陶山書堂의 造營의 特性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本 研究는 아래와 같이 몇가지의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 (1) 退溪가 晩年에 陶山에 그의 卜居와 講學의 터를 정하게 되는 것은 朱子의 晩年의 武夷精舍 經營事實를 先例로 한 그의 樂山水觀과 儒家的 隱遁觀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 (2) 退溪는 陶山에 書堂터를 정하는 데에 있어 그 基本要件으로 陶山의 輿地圖의 位置와 관련된 地理, 景物을 살피는 데에 기본이 되는 山水의 두가지 요건을 그 으뜸으로 삼고 있으며, 골의 形勢와 向에 따라 서당터를 결정하였으며, 人心과 관련된 내용도 그 요건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 (3) 陶山書堂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는 우리가 흔히 傳統景觀을 해석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風水의 概念에 따라서 書堂의 位置와 坐向을 정하기 보다는, 골의 形勢와 入口를 중심으로 서당의 자리를 정

註 35) 李家源, 上揭書, p.129.

36) 淨友塘의 東에 있는 泉名.

37) 原注 四言詩에 의하면 書堂의 남녘에 있다.

38) 節友社의 남녘에 있다.

39) 書堂의 뒤편에 있다.

40) 書堂의 東녘에 있다.

41) 書堂의 서녘의 아지랭이.

42) 天淵臺의 아래에 있다.

43) 陶山에서 溪南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벼랑 길.

44) 陶山書堂에서 上溪로 넘어가는 길에 있다.

45) 도산에서 낙천을 건너 가기 위한 다리.

46) 강 건너에 있는 宜仁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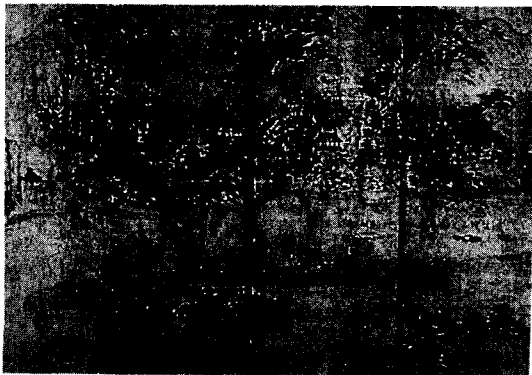
47) 原注 四言詩에는 다음의 네 절을 읊은 것은 모두 천연대에서 바라보는 곳에 있으나 이미 주인이 있으므로 도산에 전속시키지 않고 별도로 아래에 기록하였으니, 또한 亦山谷의 이른바 “借景之義”라 쓰고 있다.

한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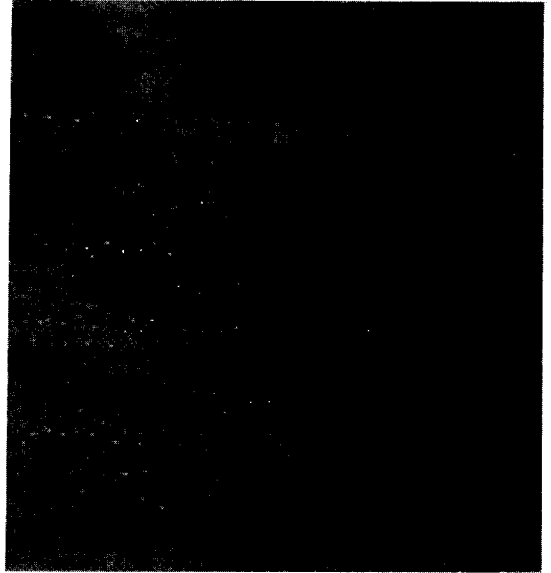
- (4) 陶山書堂의 전체 景觀構成的 측면에서는 陶山書堂과 谷口門을 잇는 축선에 天淵臺와 天光雲營臺를 배치하여 전체 구성에 삼각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그 꼭지점에 서당을 배치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5) 陶山書堂의 景觀構造的 측면에서는 逍遙와 眺望을 위한 景觀要素를 陶山書堂을 중심으로 하여 그 可視圈에 따라서 近景 中景 遠景的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可視的이라 할지라도 그 所有權에 따라 借景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 5〕謙齋의 溪上精居.



〔圖 6〕姜世晷의 陶山圖



〔圖 7〕金昌錫의 陶山圖.

引用 및 參考文獻

1. 金熙春(1979) “朝鮮朝書院의 建築計劃에 關한 研究”, 「대한건축학회지」, 23권 88호.
2. 경상북도(1979) 퇴계학연구 제10집.
3. 경상북도(1979) 퇴계학연구 제16집.
4. 문화공보부(197) 도산서원 중수지.
5. 민족문화추진회(1986) 國譯 退溪集, 민족문화문고.
6. 宋志香 編著(1983) 「安東鄉土誌」, 대성문화사.
7. 李家源(1989) 「退溪學及其系譜的 研究」, 퇴계학연구원.
8. 李家源(1987) 「退溪詩譯注」, 정음사.
9. 俞俊英(1984) 「造形藝術과 性理學」, 「한국미술사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848, 현암사.
10. 張聖浚(1977) 「마을의 領域化에 關한 소론」, 명대논문집.
11. 丁淳睦(1987) 「退溪評傳」, 지식산업사, 1987.

12. 崔杞秀(1989) 「曲과 景에 나타난 韓國傳統景觀構造의 解析에 關한 研究」,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 崔椿煥, 張聖浚(1977) “安東 土溪洞(안동댐 수물지구 건축환경 현지조사)”, 명대논문집 제10집.
14. 洪升在(1992) “朝鮮時代 禮的 秩序體系와 建築의 配置構造에 關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 2호 통권 40호.